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신임회장

**황규철** 경림건설(주) 대표이사

# "지역 업체도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터"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도·영종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인천 뉴시티 건설 등 대형건설사업에 가능한한많은지역건설업체들이참여할 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13대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으로 취임한 황규철 경림건설 대표는 인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 기반 자체는 매우 열악한 편이지만, 최근들어 영종도 및 송도, 청라 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사업, 검단신도시건설, 구도심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많은대단위사업이발주되고있다.

황 회장은 이와 관련, "여타 지역과 달리 공사 발주물량은풍부하지만대형공사일색이어서 지역 중소 업체에 돌아갈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 중소 업체의 참여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 뒤 "지방 중소 업체가대기업과공동도급으로40% 이상의지분율로 참여하는 BTL 민자 사업이 제도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다"고밝혔다.

특히, "BTL 민자사업의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업역인 50억원 미만의 학교 시설 공사는 전량 재정 사업으로 발주되도록 하고 번들링 규모는 200억원에서 300억원 내외로 조정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폭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 "지역 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하고지방중소건설업체출자비율을 40%에서 20%로 하향하여 지역 건설산업의회생에밑받침이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황회장은특히 "최근인천시와한국토지공사가청라지구전체 공사금액의 20%를 지역업체에주기로약속한만큼앞으로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비율도점차높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 또한황회장은 "국제입찰대상공사의 경우발주처에서입찰에참여한대기업들이 관내업체와공동 도급으로참여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관공서, 정부투자기관과협의하여분할발주, 공구분할등을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즉, 사업 추진 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지역 업체가 최대한참여할수있도록강력히권고하고 입찰 공고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30% 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야만 지역 건설업이 보호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252억원이상되는대형 공사 발주시지역의무대상 공사인 252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등 모든 민자 사업에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 건설경기부양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야한다"고강조했다.

"부동산경기의침체와건설산업관련제도의변화등모든면에서어려운시기에처해 있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새로운 도약과변화를모색하는한편회원사의이익증대에기여하겠다"고 신임 인천시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다시 한번 다짐한 황 회장은 "지역 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오는 11월 '가을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건설업 이미지와 지역 친화를높이는모습도보일계획"이라고말했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